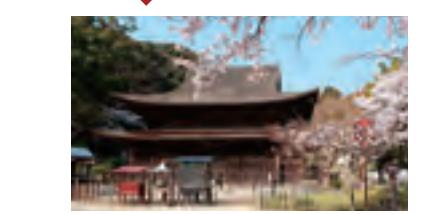


시모노세키 관광안내

Welcome to Shimonoseki

성하마을 조후

에도시대에 조후 모리 가문이 다스리던 성하마을로 골목 곳곳에 당시의 훈당이 남아 있다. 역사 깊은 사찰과 옛 분위기를 간직한 아기자기한 카페도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국보 고잔지

시모노세키 역에서 버스 23분 '조카마치 조후' 하차, 도보 10분
1327년에 창건된 사찰. 불전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양식이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벚꽃과 단풍의 명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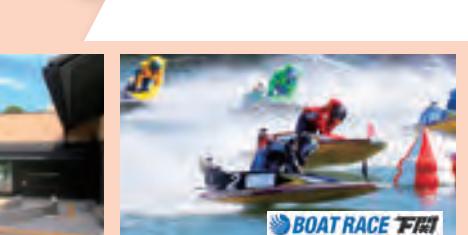
조후 모리 저택

시모노세키 역에서 버스 23분 '조카마치 조후' 하차, 도보 10분
1903년에 조후 모리 (長府毛利) 가문 14대 모토토시 (元就) 가 세웠으며 메이지 청황도 숙박한 적이 있다. 전통 정원을 바라보며 말차 체험도 가능하다. (말차 400엔, 과자 포함)
가을에는 단풍의 명소.
어른 200엔, 어린이 100엔
9:00~17:00/연말연시 휴무



조후 정원

시모노세키 역에서 버스 20분 '시리즈 비주초 간 마에' 하차 바로 앞
조후 모리번 (毛利藩) 종신의 저택터로 서원과 다리를 갖춘 전통 정원. 연꽃 (6월중순~8월하순)과 단풍 (11월중순~12월상순) 등 계절마다 다양한 표정을 보여 준다. (매점에서 일차·커피 등을 판매)
어른 200엔, 대학생 100엔
9:30~17:00(최종입관 16:30)
월요일 휴무 (공휴일은 개관하고 다음 날이 휴무), 연말연시 휴무



BOAT RACE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 역에서 버스 23분 '조카마치 조후' 하차, 도보 10분
해협이 만들어 낸 시모노세키의 역사와 문화 수면을 질주하는 스피드경과 저지적인 모터음은 박력 만점. 100엔부터 할 수 있어 초보자도 도전하기 쉽다.
어른 200엔, 대학생 100엔
9:30~17:00(최종입관 16:30)
월요일 휴무 (공휴일은 개관하고 다음 날이 휴무), 연말연시 휴무



ORALE

시모노세키

(보트레이스 티켓)

시모노세키 역에서 도보 4분

시모노세키의 미식



복어 요리

일본 국에서 가장 많은 복어 취급량을 자랑하는 시모노세키의 특산물. 시내 음식점에서 회, 전골, 뒤김, 스시, 국물탕, 국밥, 면발, 치즈리미 술 등 다양한 메뉴를 1년 내내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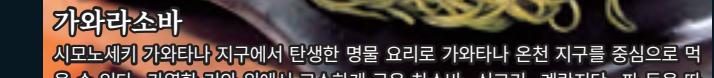
만간젠세키 (満願善席)

시모노세키의 우수한 재료로 제공하는 고급 품질로, 등록된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궁금의 맛. (사전예약 필요)



돈찬나파 (곱창 전골)

원장 베이스 스포르팅과 야채를 끓인 시모노세키 발달의 로컬푸드. 마지막에는 밤이나 우동면을 넣어 먹어도 좋다.



가와라소바

시모노세키 '가와라' 지역에서 탄생한 명물로 가와라 온천 지역을 중심으로 먹을 수 있다. 가열한 기와 위에서 고소하게 구운 치소바, 쇠고기, 계란지단, 파 등을 따뜻한 국물 (소스)에 찍어 먹는다.

고래

성게

야구

오징어



EVENT & FESTIVAL



5 May 시모노세키 해협축제

기간 : 5월 3일
장소 : 간몬해협 연안 일대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행진하는 센데이사이 축제, 80여 채의 선박이 해상을 누비는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해협을 따라 펼쳐진다.

투르 드 시모노세키 (사이클대회)

바닷길과 두둑길을 가로지르며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매력만점 사이클링 대회.

도요타 반딧불축제

기간 : 5월 하순 ~ 6월 상순
장소 : 도요타초 나시아리
도요타에서 반딧불 빛의 절경에 달하는 어여름에 개최된다. 반딧불 감상용 위한 반딧불 배'에서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고야와 (강)의 관지 보더루 (반딧불) 수마 마리가 빛의 춤을 볼 수 있다.



8 August 간몬해협 불꽃대회

기간 : 8월 13일
장소 : 간몬해협 연안 일대
서일본 최고의 불꽃놀이로 시모노세키와 모지에서 총 15,000발 이상의 불꽃을 쏘아 올려 해변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시모노세키 바칸 축제

기간 : 8월 하순 토·일요일
장소 : 시모노세키 역사거리 일대
수많은 공연과 야시장으로 도시 전체가 열기에 휩싸이는 여름의 일대 풍물시. 최종일에 총 4,000명이 참가하는 헤이케오도리 춤으로 감동이 고조되며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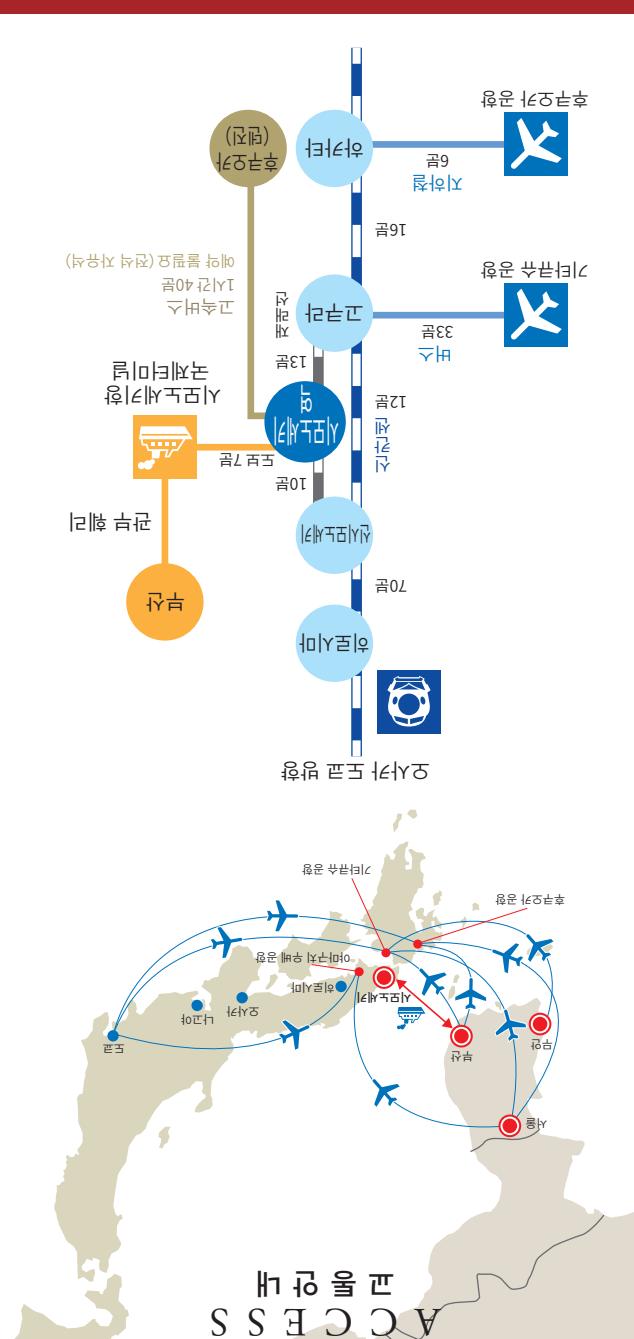
10 October 도요우라 코스모스축제

기간 : 10월 상순~중순 장소 : 리프레쉬파크 도요우라
100만 송이의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가을에 개최된다. 코스모스 미로나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11 November 시모노세키 가이쿄 마라톤

푸른 바다의 절경을 바라보며 달리는 본 마라톤은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높은 대회.



시모노세키역 주변

시모노세키시의 중심지로 바다의 관문인 시모노세키항 국제터미널, 가이쿄 유메타워, 대형 복합 쇼핑몰 등이 즐비해 있어 짧은 시간 내 쇼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가라토 지구



H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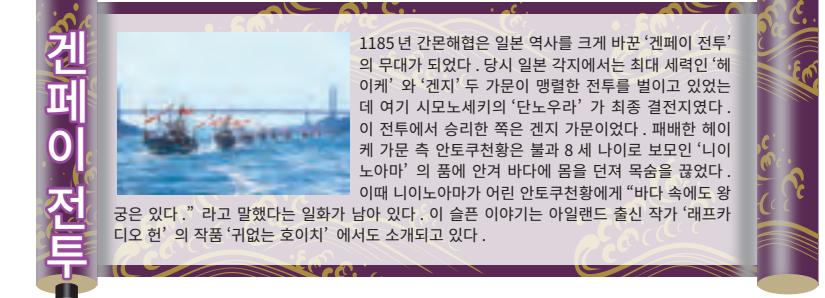
1 갓포 여관 스미레	TEL.083-222-3191
2 프린스호텔 시모노세키	TEL.083-232-2301
3 호텔 윙 인터내셔널 시모노세키	TEL.083-235-2111
4 시모노세키 스테이션호텔	TEL.083-231-2225
5 비아인 시모노세키	TEL.083-222-6111
6 시모노세키역 니시 워킹던호텔 플라자	TEL.083-261-0410
7 스마일호텔 시모노세키	TEL.083-233-0111
8 그린호텔 시모노세키	TEL.083-231-1007
9 국민여관 덴카이	TEL.083-222-3676
10 도미코인 PREMIUM 시모노세키	TEL.083-223-5489
11 도요코인 시모노세기 가이쿄 유메타워 앞	TEL.083-234-1045
12 유호여관	TEL.083-231-0029
13 플라자호텔 시모노세키	TEL.083-223-3333
14 스카이하트호텔 시모노세키	TEL.083-232-0001
15 긴라쿠	TEL.083-222-0017
16 기라쿠여관	TEL.083-222-3037
17 가라토 센트럴호텔	TEL.083-231-5235
18 도쿄다이이치호텔 시모노세키	TEL.083-223-7111
19 시모노세기 그랜드호텔	TEL.083-231-5000
20 갓포 여관 순판로	TEL.083-223-7181
21 uzu house	TEL.083-250-9787
22 패밀리 로지 하타고야 · 단노우라PA점	TEL.083-222-8888
23 미모스소가와 별관	TEL.083-222-3357
24 겐페이소	TEL.083-235-8888
25 시모노세키 히노야마 유스호스텔	TEL.083-222-3753
26 국민숙사 가이쿄 뷔 시모노세키	TEL.083-229-0117
27 만주소	TEL.083-222-1126
28 시모노세기 온천 가제노우미	TEL.083-241-1180
29 고구시야	TEL.083-245-0051

시모노세키항 국제터미널 주변

시모노세키역 · 시모노세기(쇼핑센터)에는 터미널 2층에서 직접 유크로 나가서 갈 수 있습니다.(도보7분)



눈 앞에 간몬해협이 펼쳐져 항구도시다운 분위기가 가득한 곳. 어시장과 수족관, 레트로 건축과 역사 깊은 신사 등 현재와 옛날의 불거리들이 집중되어 있다. 기타큐슈시 모지코 레트로지구에는 배를 타고 5분만에 도착한다.



1185년 간몬해협 일본 역사를 크게 바꾼 '겐페이 전투'의 무대가 되었다. 당시 일왕 경지에서는 최대 세력인 '헤이' 와 '겐지' 두 가문이 맹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펜지 가문이 최종 결전을 이겼다. 이에 가문 축 안으로 천황실과 불과 8·나니로 보모로 '니노노야마' 의 품에 안겨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 이때 니노야마가 어린 인도 국친왕에게 '보다 속에 드는다오 현'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구 시모노세기 영국영사관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7분 '가라토' 하차 바로 앞 일본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영사관 건물로 1906년에 세워졌다. 내부에는 옛 영사가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카페 · 레스토랑도 이용 가능.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입관무료 / 화요일 휴무 (공휴일은 제외)

시몰 시모노세기

시모노세기 역 바로 앞 웃가게와 드럭스토어, 서점, 문구점, 마트, 레스토랑 등 약 150 점포가 들어 있는 종합쇼핑센터. 다이마루백화점과 영화관이 인접한다.

하이 ! 가로토 요코초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5분 '가이코칸' 마에 하차, 도보 2분 간몬해협에 펼쳐지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높이 약 60 미터의 대관람차를 비롯하여 12 종류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입장 무료, 단 놀이기구는 유료 / 영업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하이 ! 가로토 요코초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5분 '가이코칸' 마에 하차, 도보 2분 간몬해협에 펼쳐지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높이 약 60 미터의 대관람차를 비롯하여 12 종류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입장 무료, 단 놀이기구는 유료 / 영업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하이 ! 가로토 요코초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5분 '가이코칸' 마에 하차, 도보 2분 간몬해협에 펼쳐지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높이 약 60 미터의 대관람차를 비롯하여 12 종류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입장 무료, 단 놀이기구는 유료 / 영업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하이 ! 가로토 요코초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5분 '가이코칸' 마에 하차, 도보 2분 간몬해협에 펼쳐지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높이 약 60 미터의 대관람차를 비롯하여 12 종류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입장 무료, 단 놀이기구는 유료 / 영업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하이 ! 가로토 요코초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5분 '가이코칸' 마에 하차, 도보 2분 간몬해협에 펼쳐지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높이 약 60 미터의 대관람차를 비롯하여 12 종류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입장 무료, 단 놀이기구는 유료 / 영업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하이 ! 가로토 요코초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5분 '가이코칸' 마에 하차, 도보 2분 간몬해협에 펼쳐지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높이 약 60 미터의 대관람차를 비롯하여 12 종류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입장 무료, 단 놀이기구는 유료 / 영업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하이 ! 가로토 요코초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5분 '가이코칸' 마에 하차, 도보 2분 간몬해협에 펼쳐지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높이 약 60 미터의 대관람차를 비롯하여 12 종류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입장 무료, 단 놀이기구는 유료 / 영업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하이 ! 가로토 요코초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5분 '가이코칸' 마에 하차, 도보 2분 간몬해협에 펼쳐지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높이 약 60 미터의 대관람차를 비롯하여 12 종류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입장 무료, 단 놀이기구는 유료 / 영업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하이 ! 가로토 요코초

시모노세기 역에서 버스 5분 '가이코칸' 마에 하차, 도보 2분 간몬해협에 펼쳐지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높이 약 60 미터의 대관람차를 비롯하여 12 종류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입장 무료, 단 놀이기구는 유료 / 영업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겐페이 전투

1185년 간몬해협 일본 역사를 크게 바꾼 '겐페이 전투'의 무대가 되었다. 당시 일왕 경지에서는 최대 세력인 '헤이' 와 '겐지' 두 가문이 맹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펜지 가문이 최종 결전을 이겼다. 이에 가문 축 안으로 천황실과 불과 8·나니로 보모로 '니노노야마' 의 품에 안겨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 이때 니노야마가 어린 인도 국친왕에게 '보다 속에 드는다오 현'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이 술은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래프카 디오 헌'의 작품 '귀없는 호이자'에서 소재되고 있다.